

제2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말씀 묵상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골로새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신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골로새교회에 닥친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단과 세속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처방은 바로 '오직 예수의 복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온전하고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나 어설프게 알면, 여러 가지 이단 사설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단이 창궐하고 세속 가치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오직 예수의 신앙'을 붙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1. (_____)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그 기초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13-14)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졌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1) (_____)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2) 우리 모두는 (____)

진리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3) (____)은 사망

죄의 심각성은 죄는 오직 ‘생명’으로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4) (____)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법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취하심으로 나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가죽옷’, ‘유월절의 피’, ‘구약의 제사’가 모두 대속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11)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27-28)

→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 즉 ‘약속의 피’입니다. 대속을 위한 약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12)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11-14)

5) 예수 외에 (_____)

따라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11-12)

→ 복음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24)

→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_____)

골로새서에 나타난 기독교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15-17)

1) ()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2) 하나님의 ()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오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8-10)

→ 영이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실 때는 말씀, 즉 로고스였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17)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5-7)

3) ()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그분은 곧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15-17)

→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2-3)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6)

→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